

제 117 호

사순 제 2 주일

1975. 2. 23.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 감 론 □

쭉덕 공론

(활동하는 교회)

김 병 윤 신부

고요한 밤의 적막은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햇빛에 의해 물러가듯이 한 겨울내 죽은듯한 겨울 잠은 훈훈한 봄 기운이 흔들여 깨워놓는다.

지금, 여기 우리네가 살고 있는 곳이 작박하고 차가운 다 허더라도 밝은 미소가 있고 따스한 온정이 오고 간다면 머지않아서 평화로운 터전이 이룩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는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였으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의 견지에서 볼 때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루살렘 길은 슬픔이요 부끄러움이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사모도 있을 수난에 대비해서 당신의 참모습(天主性)을 영광스럽게 보여 주셨던 것이다. 제자들로 하여금 수치를 통해 영광을, 굴복을 통해 승리를, 멸시를 통해 우러러볼이 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다. 찬란한 광경을 보자 그곳에서 오래 오래 살고픈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허나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수난의 길에 오르셨다.

오늘의 우리 교회안에는 산위에 머물기를 원했던 제자들 처럼 생의 도피를 하려드는 형제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어떤이는 종교적 환상으로, 어떤이는 명예욕으로, 또 어떤이는 술로, 사업욕으로 장막을 쳐놓고서 생의 참됨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 말이다.

교회가 다락방의 모임(쭉덕공론)은 아니며, 기도와 명에에만 젖어 움추린 상태도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났듯이 우리 교회는 성신의 그느르심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이루어 놓아야 하겠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새로운 면에서 개혁 또는 육성시켜 주었다. 전례면에서도 그렇고 현대 세계의 사목에 대해서도 인류와 인류 역사의 흐름에서 초래되는 제반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적극적인 일들을 제시해 주었다. 여러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며 복음의 빛으로 해명해 주고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사순 제2주일을 보낸다. 활동하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밝은 미소를 입고 따스한 온정으로써 단장을 하고서 살벌하기만 한 오늘의 우리 주위를 올바르게 만들어 놓아야 하겠다. <장계 본당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임당송 이 내 마음 당신께 아뢰옵고, 이 내 얼굴 당신을 찾고 있삽나이다. 그 얼굴 나에게게서 감추지 마옵소서.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창세기 12:1-4)
하느님 백성의 아버지로 부르실 받은 아브라함.
□증계송 ○야훼님, 우리가 당신께 바랐던 그대로 여백 여기심을 우리 위에 내리소서
주님의 말씀이 울으시도다 그 하신 일마다 진실하도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즐기시고 그 사랑은 땅에 가득하다. ○

□제2독서 (디모데오 후서 1:8b-10서서 p.484)
하느님이 우리를 부리시고 비추신다.

□복음 전 노래 빛나는 구름을 헤치고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하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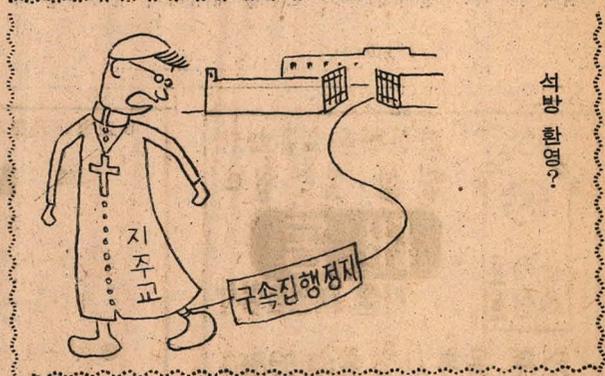
□복음 (마태오 17:1-9 서서 p.40)
그의 얼굴은 태양 같이 빛났다.

□신자들의 기도
1.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사순절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이 따르는 회개의 때가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 주여 우리의...
2. 바로 "당신의 모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 이다지도 고귀한 풀위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불안하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현대에 "시대의 징표"를 올바르게 보아 아무 거리낌없이 양심껏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
3. 하느님, 당신을 면대하여 죄오리라는 희망속에 세상을 떠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바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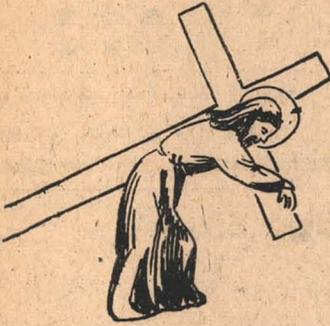
†청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고 청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많이 부족하나, 당신의 크나큰 자비로 들어 허락하여 주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주 예수... 비나이다. ○아멘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순정이 산책 *



십자가의 길 (1)



- 제 1 처 예수,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제 2 처 예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제 3 처 예수, 기진하시여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제 4 처 예수와 성모, 서로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제 5 처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한 상 감

1. 사형선고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당신은 가난하고, 병들고,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죄(?)로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결과 속에 다른 바리사이들더러 독사의 무리, 회절한 무덤이라고 나무라셨다는 죄(?)로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그게 죄입니까?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겸은 것을 겸다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도무지 못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더러 귀속말로 끝내버리자고 영클한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익을 마다하느냐고 되려 큰소리로 나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이 끝때로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쉽게 타협해버릴까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옳다고 믿거든요.

용기를 주세요. 당신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말입니다.

2.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당신은 기어코 제대신 당하셨습니다.

잘못된 일은 조상탓이 아니라, 우리의 원조(元祖) 야담도 하느님의 명을 거역하고는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탓을 여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도 곧잘 제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잘합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려드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옛사람들이 그러하니 더욱 그런것 같습니다. (정말로 죄송스럽게도, 저는 또 남-옛사람-을 들먹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상때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배워왔습니다. 어쨌든 제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러지만, 아무래도 옛사람부터 솔선수범을 하는 편이 교육적인 효과도 더 클테지요. 또한 옛사람들은, 당신처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는 못할지라도, 자기만 속 빠지고 아랫사람들더러 지라고 하지는 말아야겠지요.

용기를 주세요. 남이야 어떻게 제 십자가나 잘 찾아서 설 수 있는 용기를 말입니다.

3. 첫번째 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죄송합니다. 기어히 넘어지셨군요. 십자가가 그렇게나 무거워서 당신은 잡히시던 날 갓세 마니에서 그렇게 피와 같은 땀을 흘리셨군요. 그래서 죽음의 잔을 멀리해 주시라고 당신의 아버님께 기도하기도 했었군요. 제 죄가 그렇게나 무거운 줄을 알았습니다.

저는 해가 바뀌거나 무슨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 봅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는 주저앉고 맙니다. 금년 사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주세요. 너무나 쉽게 쓰러지지 않을 용기를 말입니다.

4. 성모 마리아와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죄인 취급을 받는 아드님을 바라보는 어머님의 마음을 어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은 아픔으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낳아주시는 아픔, 우리의 잘못으로 끼쳐드리는 아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하기 보다는 어머님께 역정을 더 잘 냅니다. 불효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않는 하느님을 섬길 수 없다는 당신의 가르침이 가슴을 찢습니다.

거친 마음을 녹여주소서.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형제부터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5. 예수를 도와 십자가를 진 시몬

주여, 아무도 당신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열심히 따른 사람들, 당신의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만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시몬조차도 로마 군사의 강박에 의해서 억지로 당신을 거들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무겁고, 당신이 세우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들은 바쁘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을 외면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기관에서 생활의 근거를 얻기 위하여 그때만 당신을 믿는 체 합니다. 주여, 저도 그러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비겁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세요. 아무리 바쁘고 능력이 없더라도,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신과 함께 십자가를 나누어질수 있는 용기를 말입니다.

* 교형여러분의

부 활 상 회

교형들에게 염가판매 *

남학생...교복(에리트치) 및 모자일절
남자대인...가죽잠바, 의류일체
여자대인...친철라코트,
히말라야 코트

● 전주시 전동, 매곡교사거리
주 원 배(실베들)아빌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 지 사 진 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② 6544



파이렉스·실크벽지
집 철·도장 청부

대 통
지물 페인트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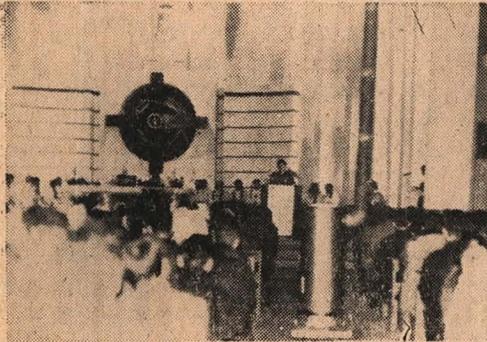
전주 동부시장동(25986)

□ 양 지 쪽 □

□기도회 현장□

애국적 민주인사 完全 自由 요구

—정의구현 사제단 全州 기도회에서—



(사진 제공 : 스타사장)

전주교구 사제단이 주최한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17일 오후 7시반부터 중앙성당에서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제들과 수녀, 10여명의 목사 구속자 가족, 민주회복 국민회의 전북지부 신삼식 목사, 은명기 목사, 유정前 국회의원 등 일반 시민 다수가 참석했다.

제1부 행사인 미사는 金鍾澤 부주교가 주례했고 威世雄신부가 강론했다. 독서(丁勝鉉 신부)와 복음(淸州교구 李漢九신부)에 이

어 함신부는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10개의 보화를 몽땅 빼앗겼다 가 끈질긴 민권투쟁으로 이제 겨우 2개정도만 되돌려 받았다. 2·15 刑집행정지 조치는 인권회복운동의 되나는 투쟁의 일단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석방조치는 아무런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를 교회의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느님의 뜻과 종말론적 구원사상을 이 세상에 알리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약한자와 버림받은 자를 외면하는 교회는 이미 그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바리새이와 부자, 헤로데를 나무라시던 그리스도의 사회비판 기능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순교자가 되어야 하고,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힌자들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자들의 기도는 목사들(최영태, 박석진)과, 수녀들, 그리고 가톨릭 노동청년회에서 인도했다.

제2부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의 현실고발과 구속자 가족의 호소,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金九詰신부가 낭독한 현실고발에서 「석방조치는 인권회복이 전제되지 않는한 일시적인 호소책이다. 법질서를강의면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인혁당사건, 허헌구 씨와 김진환씨의 양심선언, 동아일보 사태」를 고발했다. 이어 인혁당사건에 관련된 禹洪善씨 부인 康順嬪씨와 全昌一씨 부인 林仁英씨의 애끓는 호소와, 文正鉉신부가 낭독한 「우리의 결의」를 박수로 채택하고 수난기약의 성가속에 사제단은 퇴장했다,

* 우리의 결의 *

1.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과 순교자적 정신을 받들어 우리는 민주회복, 인간회복, 인권회복의 노력을 계속한다.
2. 모든 비양심, 반민주, 비인간적 집단과 그를 밀방첩하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적 진리와 양심에 따라 투쟁한다.
3.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킬 것이다.
4. 지학순 주교를 비롯한 애국적 민주인사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요구한다. 나머지 구속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공개 재판을 통하여 사건의 조작성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5. 허헌구, 김진환씨의 양심선언을 지지하며, 우리는 순교자가 될 각오로 진리와 양심의 증언을 계속한다. 1975. 2. 18. 전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요심이 (83) 김병오



□신간안내□

구약성서 이야기

마리아 정네로사

박홍근 역

신약성서 이야기

마리아 정네로사 저

박홍근 역

각 1200원

메아리 회원 모집

음악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모임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에서
연락처 : 가톨릭 센터 (@3498)

현대 광고사

*아크릴.각종간판.아취.셀프인쇄

현대 DP사

*칼라흑백사진.카메라수리

송홍섭(토마스)

전화 @ 9431

삼남극장과 전북신문사 비거리 중산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역 중앙 시장통

(전화 @4577)

☆교우들의 집☆

영명 T·V 수리센터

- 텔레비전, 전축, 라디오
- 중고품 매매, 판매, 수리
- 출장비 무료

유원상(돈보스코)

전주 동부시장동 (전화 @913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오늘 전주 교구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
각 분당 감독환 교제 내용(공문 내용 참조)을 정확히 준수해야겠습니다.
- 제 8차 꾸르실료 (2월25-28일, 가톨릭센터)
① 참가 희망자는 분당 신부님께 문의 바람
② 꾸르실리스타 형제들의 뜨거운 빨랑카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 (3월3-5일, 가톨릭센터, 회비 2,500원-사건대 포함)
- 전주 교구 중·고등 연합회 제17대 연합회장단 입후보자 접수 (2월 28일까지, 가톨릭센터에서 접수)
자격: ① 75학년도에 고교 2학년 재학생 ② 신자로서 학생회 활동에 충실한 자로서 지도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추천서 필요) ③ 전주 시내 거주자 ④ 회장: 남, 부회장: 여
- 4 지구 신부님 전체 회의: 2월 24일 전동성당에서

(중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보좌 신부 박 종 삼
사도 회장 김 영 진

(평일) 오후 7시30분 <금> 오후 2시 (어머니미사)
<토> 특전미사 오후 7시30분, 오후 2시 (어머니)

- 주일학교 졸업식 및 종업식: 공식 미사후
- 중·고교생 교리 경시대회: 오후 2시 분당
- J.O.C 일반회의: 3월 2일 오후 2시, 중앙성당 강당
대상: 젊은 남녀
- 주일학교 입학식: 3월 1일
- 학생회 정기총회: 3월 1일, 중 고생 남녀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훈

- 십자가의 길 기도: 매일 미사후 공동으로
-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 복자 부녀회 공식 미사후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령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 성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
-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중노 2가 박태수: 5,000 중노 1가 임종섭: 1,000
" 박영희: 1,000 인후동 정바울라: 5,000
한현남: 1,000 중노 2가 강아예: 1,000
중앙성당 박신부님 첫 혼배미사 예물 분당 신축헌금
에 기금: 3,000원 주계: 12,500 누계: 1,326,202
- 축 결혼: 25일 11시
신랑: 김 창근(가브리엘), 신부 김공순
⑤신축 성미 주계: 4말, 누계: 244말

- 신용조합 월례회
- 예비자 교리 시작: 공식 미사후
- 공소 판공 시작 (25)신흥리 (26)성당리 (27)내정리
- 반 회합: 6반 (28일 오후 8시)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함 철
사도 회장 이 립 재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종 환

- 전동 성당 창립 61주년 기념행사 간담회
3월 3일 오후 8시, 가톨릭 센터에서
- 방ziger 삼회: 오늘 오후 1시30분
- 성경 퀴즈 우승: 옥좌셀, 준우승: 상아보탑P
- 학생회 정기 총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유치원에서)
- 셋별 셀 500차 기념행사: 오늘 오후 3시

- 춘계 판공성사 일정
전당리: 24-26, 동산촌: 28 미산리: 26-27, 내동
리: 27-28, 분당: 3. 6 (여러신부님을 접전)
- 아동 교리 시간 변경
3. 2부터 주일 오후 3시 시작
- 미사시간 변경
(주일): 10시, 오후 4시(아동미사), 오후 7시

금주의 숲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주 실베들(원배), 부활상회 매곡교 사거리
(남학생복 전문)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부 신 태 인 창 제 안 인 율 정	셋별 유치원 원아모집	3,615원	제 3 지구	창 인 동 황 동	청년회 월례회	27,320원 원
		우리아 회합 시간 변경	16,275원			분당 살림에 관심을 가집시다	
제 2 지구	대 문 율 동 중	꾸르실료받으시는분께 많은기구를	5,780원	제 4 지구	중 앙 노 송 동 덕 진 서 학 동 전	주일 학교 졸업식 및 종업식	22,156원
		부의 무탁자에게 구정선물 전달	3,655원			안토니오 재속 형제회	
제 3 지구	고 김 부 신 태 인 창 제 안 인 율 정	무의 무탁자에게 구정선물 전달	14,150원	제 5 지구	원 주 장 진 순 함	춘계 판공 성사	9,290원
		사도회 월례회				십자가의 길 기도	
제 2 지구	대 문 율 동 중	의인 입교 대상자 등록요망	2,370원	제 5 지구	원 주 장 진 순 함	사도회	16,525원
		청년회	30,145원			셋별 셀 500차 공개 회합	
제 3 지구	고 김 부 신 태 인 창 제 안 인 율 정	가리파스 월례회	20,893원	제 5 지구	원 주 장 진 순 함	반 회합	42,125원
		반회합	15,795원			청년회 월례회	
제 3 지구	고 김 부 신 태 인 창 제 안 인 율 정	회장단 공동체 묵상회 참석 요망	3,725원	제 5 지구	원 주 장 진 순 함	소화 유치원 원아 모집	13,430원
		사제양성회원 가입 합시다	11,753원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제 3 지구	고 김 부 신 태 인 창 제 안 인 율 정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3,100원	제 5 지구	원 주 장 진 순 함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5,620원
		주일학교 입학	37,491원			학생회 모임	
제 3 지구	고 김 부 신 태 인 창 제 안 인 율 정	주일학교 입학	37,491원	제 5 지구	원 주 장 진 순 함	학생회 정기총회	1,920원